

문 10.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

< 보 기 >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내가 오직 바라는 일은 네가 잘됐으면 좋겠다.
→ 내가 오직 바라는 일은 네가 잘됐으면 하는 것이다.
- ② 형사들은 도피 중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문초하기 시작했다.
→ 형사들은 그를 도피 중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문초하기 시작했다.
- ③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 ④ 그는 손을 넣고 걷다가 눈길에 미끄러졌다.
→ 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 눈길에 미끄러졌다.

문 11. 다음 작품은 김삿갓이 주인에게 대접을 받고서 쓴 시이다. 감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1)

네 다리 소반에 죽 한 그릇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떠도네
주인장, 면목 없다 말하지 마오
나는 물에 거꾸로 비친 청산이 좋다오.

- ① 가난한데도 죽이나마 대접하려는 주인의 인정이 따스하다.
- ② 감사를 전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 ③ 하늘과 떠도는 구름은 주인의 유유자적한 삶을 의미한다.
- ④ 나그네의 정서에서 자조나 한탄은 보이지 않는다.

문 12. 다음 글에 나타난 매클루언의 관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12)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매체[media]’란 어떤 작용을 다른 곳으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물체나 수단이다. 이에 따르면 것 자체가 부딪치는 소리를 우리 귀에 전달하는 공기, 또 음성의 정체를 분석하도록 뇌에 전달하는 귀도 일종의 매체이다. 곧 매체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매체학자인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 1911 ~ 1980)은 매체에 대한 이러한 기존 인식이 매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매체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 작용을 유발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활용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매개 도구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연설이나 편지처럼 직접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말과 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 옷과 집, 과학과 철학, 회화와 음악 등도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매체에 의해 인간의 사고가 결정되고, 인식 체계가 바뀌며,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까지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매체는 메시지이다.’라는 그의 말에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 담겨 있다.

- ① 언어적 기호(記號)와 비언어적 기호(記號) 둘 다 매체다.
- ②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면 사회가 변할 수 있다.
- ③ 매체는 매개체이고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단순한 매개 수단이다.
- ④ 의미 전달에 활용된다면 기차도 매체라 할 수 있다.

문 13.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3)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勿”乙抱遺去如 (* ‘勿’은 ‘卯’로 판독하는 경우도 있음.)

- ① 『균여전(均如傳)』에 실려 있다.
- ② 민요적 성격이 강하다.
- ③ 첫 번째 구의 밑줄 친 ‘隱’은 음독(音讀)한다.
- ④ 형식상 <헌화가>와 같다.

※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졌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중략)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버렸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중략)

“어께가 참 넓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구.”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는지 과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중략)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오?” “전라선이에요.” (중략)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했 드릴게요.” “내가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흠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루 가려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중략)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선했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내다보았다. 백화가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열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중략)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쥘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쥘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중략)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문 14.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였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4)

- ① 영달은 백화와 동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② 정 씨 본인은 뜨내기 신세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③ 백화는 영달의 마음을 가늠하기 힘들어 불안해한다.
- ④ 백화는 영달에게 호감이 있다.

문 15. 문학 기법 관련 서술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5)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관찰자 시점의 성격을 지녔다.
- ② 말하기(telling) 기법을 통해 극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③ 백화의 복잡한 심정이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 ④ 말끝을 흐리는 방법으로 ‘감정의 여운’을 표현하고 있다.

문 16. 다음 글에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6)

지금 퓨전 바람은 역사 속의 문화 융합과는 사뭇 다르다. 과거에는 () 식의 변화와 통합이 주를 이뤘다. 즉 납죽의 굴을 북쪽에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식이다. 북도 중심의 서양식 아파트가 이 땅에 와서 거실 중심의 구조로 바뀐 것은 마당을 중심으로 방이 빙 둘러서는 한옥 형태에 적응한 결과다. 한국의 갈비가 바비큐 문화에 ‘적응’하여 엘에이(LA) 갈비로 거듭난 것도 ‘굴이 탕자가 되는 식’의 융합 사례들이다. 생활의 필요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이 자연스레 합치게 되었다는 뜻이다.

- ① 國粹主義 ② 衛正斥邪 ③ 嘗糞之徒 ④ 橘化爲枳

문 17. 다음 글의 밑줄 친 ‘자(恣)’와 같은 한자를 사용한 것은?17)

우리나라에서 ‘개’라고 불리는 동물을 영국인은 ‘dog[도그]’라고 부르고, 독일인은 ‘hund[훈트]’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의 의미가 언어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는 특성을 언어의 자의성(恣意性)이라고 한다.

- ① 지자체는 ‘지방 자치 단체’의 줄임말이다.
- ② 그의 방자한 태도가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 ③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시오.
- ④ 지리산은 웅장한 자태를 뽐냈다.

문 18. 다음 글의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8)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에서 실재와 똑같이 그려진 회화는 원본의 복제물인 ‘시뮬라크르’라고 하였다. 시뮬라크르는 ‘파생 실재’라고도 불리는데, 실재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사실성, 즉 ‘하이퍼리얼리티’를 가진다. 이때 실재가 파생 실재로 전환되는 작업을 ‘시뮬라시옹’이라고 한다. ‘시뮬라크르’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플라톤인데, ‘시뮬라크르’를 실재하지 않는 것, 가상의 것으로 보았다. 플라톤은 현실은 세계의 원형인 이데아의 복제물이고 회화는 그 현실을 다시 복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플라톤의 시각과 달리 보드리야르는 현대에는 시뮬라크르가 독립된 정체성을 갖춘 개체, 즉 또 다른 실재이자 원본이 되었다고 하였다.

- ① 시뮬라시옹의 결과물이 시뮬라크르이다.
- ② 시뮬라크르, 파생 실재, 하이퍼리얼리티는 같은 의미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 ③ 보드리야르는 사진을 보고 이를 재현한 그림의 가치를 인정했다.
- ④ 플라톤은 실재를 완벽하게 똑같이 그린 회화의 가치를 인정했다.

문 19. 다음 글의 독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9)

(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물을 둔치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예로부터 물이 매우 귀했던 제주도에서는 잔칫집에 초대받아 갈 때 선물로 물을 가득 담은 항아리를 가져가곤 했다. 물이 곧 돈이나 과일 같은 값진 선물이었던 셈이다. 제주도에서는 비가 올 때 나무를 타고 새끼줄을 따라 흘러들어 온 빗물을 항아리에 모은 후 식수로 사용하곤 했다. 여름철에는 그 항아리 물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개구리를 거기에 넣어 기르는 집도 있었다고 한다.

(나) 느린 존재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 듯하다. 세상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낙오된다. 그러나 단기 승부의 순발력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2년 월드컵에 맞춰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급속하게 추진했던 고속철도가 예정보다 2년이나 늦게 개통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진정한 경쟁력은 오히려 주변을 찬찬히 살펴 보면서 내실을 다지는 깊이에서 나온다.

- ① (가)와 (나) 모두 우선 사실적 독해를 기본으로 한다.
- ② (가)의 두 문단은 ‘주지-부연’의 관계로 읽어야 한다.
- ③ (가)는 이해 위주의 읽기로 충분할 수 있다.
- ④ (나)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기에 공감은 피해야 한다.

문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

- ① 최남선, 이병기, 이은상은 시조 부흥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② <춘향전>, <심청전>, <구운몽>은 판소리계 소설이다.
- ③ 이상의 <날개>는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 소설이다.
- ④ <호질>, <양반전>은 박지원의 한문 소설이다.

1) ① [이론 문법 - 음운론 - 음운 변동]

'끓어'는 용언의 어간 말 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ㅎ' 탈락 현상(탈락)으로 'ㅎ'이 탈락하고 남은 'ㄴ'이 연음되어 [끄너]로 발음한다. 연음 현상은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끓어'에 적용된 음운 변동 현상은 탈락 한 가지이다.

[오답해설]

② '흙하고'의 어근 '흙'은 자음군 단순화(탈락)에 의해 [혹]으로 발음되고, '혹'의 'ㄱ'이 '하고'의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크'으로 축약되므로 '흙하고'는 [흐카고]로 발음한다. 탈락과 축약 두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③ '밤웃'은 명사 '밤'과 명사 '웃'이 결합하며 'ㄴ'이 첨가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밤:눈]으로 발음한다. 첨가와 교체 두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 '밤웃'은 실제 표준 발음상 길게 발음되어 장음 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출제 당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듯하다.)

④ '술하다'의 어근 '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순]으로 발음되고, '술'의 'ㄴ'이 '하다'의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ㅌ'으로 축약되므로 '술하다'는 [수타다]로 발음한다. 교체와 축약 두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2) ③ [이론 문법 - 형태론 - 단어의 형성]

'돌보다'는 동사 '돌다'의 어간 '돌-'과 동사 '보다'가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해설]

① '타고나다'는 동사 '타다'의 어간 '타-'와 동사 '나다'가 연결 어미 '-고'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붐뚱'은 형용사 '붐다'의 어간 '붐-'과 명사 '뚱'이 관형사형 어미 없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높푸르다'는 형용사 '높다'의 어간 '높-'과 형용사 '푸르다'가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참고) 비통사적 합성법

•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용언의 어간 + 명사'의 경우
우리말에서 조사는 생략해도 어색하지 않지만 어미를 생략하면 어색함. 따라서 관형사형 어미가 없이 용언의 어간이 명사 앞에 직접 놓이는 것은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어긋난다.

예) 검버섯, 떡거리, 덜밥, 늦더위 등

• '용언의 어간 + 용언'에서 연결 어미가 생략된 것은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어긋난다.

예) 검붉다, 뛰놀다, 오르내리다 등

• '부사 + 체언'의 경우

부사는 용언을 꾸며 주는 말이므로 체언을 꾸미는 것은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어긋난다.

예) 부슬비, 산들바람, 뽕족구두, 척척박사 등

• 한자어의 어순이 우리말 어순과 같지 않은 경우

예) 등(登) + 산(山) = 오르다, 산을

독(讀) + 서(書) = 읽다, 책을

급(給) + 수(水) = 주다, 물을

3) ④ [이론 문법 - 형태론 - 품사]

㉠과 ㉡의 '높이'는 모두 형용사 '높다'의 어간 '높-'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서술성이 없는 명사 '높이'가 된 것이다.

[오답해설]

① '백'은 수 관형사와 수사로 품사 통용한다. ㉠의 '백'은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였으므로 수사이고, ㉡의 '백'은 명사 '마디'를 꾸미고 있으므로 수 관형사이다.

② '오늘'은 명사와 부사로 품사 통용한다. ㉠의 '오늘'은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였으므로 명사이고 ㉡의 '오늘'은 동사 '해야'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③ ㉠의 '밝다'는 '불빛 따위가 환하다.'의 뜻으로 쓰인 형용사이고, ㉡의 '밝다'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의 뜻으로 쓰인 동사이다. ㉢의 '밝다'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여 '밝는'으로 활용된 것으로도

동사임을 알 수 있다.

4) ③ [이론 문법 - 형태론 - 품사]

(+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의 '들'은 '들'이 아닌 '들'이다.)

'다들'의 '들'은 부사어 '다'에 붙어 '떠간' 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부사 '다'는 '남거나 빠진 것이 없이 모두.'의 뜻을 가진다.

[오답해설]

① '공책, 신문, 지갑 들'의 '들'은 앞에 나열된 세 가지 사물들을 모두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② '앉아서들'의 '들'은 부사어 '앉아서'의 연결 어미 '-아서'에 붙어 앉아서 이야기하는 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④ '어서들'의 '들'은 부사어 '어서'에 붙어 어서 오는 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그들에게'의 '-들'은 인칭 대명사 '그'에 붙어 문장의 객체에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5) ④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네 V 말을 V 들으니 V 그럴 V 법하다 는 V 생각이 V 든다.

'법하다'는 보조 형용사로, 용언 뒤에서 '-을 법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실제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럴 V 법 V 하다'처럼 띄어 쓰지 않고 '그럴 V 법하다'처럼 붙여 쓰는 것이 옳다.

[오답해설]

① 명사의 뒤, 어원적 어근 혹은 부사 뒤에 '하다'가 붙어 한 단어가 되면 '하다'가 접미사가 되므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옳지만, 사이에 조사가 들어가거나 앞에 꾸미는 말이 오면 띄어 써야 한다. '일하다'는 '하다'가 명사 뒤에 붙어 접미사로 쓰이는 것이므로 붙여 쓰지만, 앞에서 '어려운'이 명사 '일'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어려운 V 일 V 하는'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손경심마저'의 '마저'는 체언 앞에 붙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어, 하나 남은 마지막임을 의미하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손경심마저'로 붙여 쓰는 것이 옳다.

② '떠난지'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사흘 V 만에'의 '만'은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옳다.

'돌아오다'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오거나 다시 그 상태가 된다는 뜻의 동사로 합성 등재되었으므로 붙여 쓰는 것이 옳다.

참고) 어미와 형태가 같은 의존 명사

지	의존 명사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경과한 시간)
	어미 일부	아버님, 어머니께서도 안녕하십니까. (불확실)

참고) 띄어쓰기에 주의해야 하는 조사

만	보조사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의존 명사	그는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시간의 경과) 그가 화를 낸 만도 하다.

③ 한글 맞춤법 제46항에 따라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지만 이는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음절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큰 집'은 '크기가 큰 집'으로, 의미가 특수화된 경우가 아니므로 '큰 V 집'으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큰 집'은 '집안의 만이가 사는 집', '은어로, 교도소' 등을 이르는 말로 의미가 특수화된 경우에 붙여 쓰는 합성어이다.

'한 V 채'의 '한'은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이고, '채'는 집을 세는 단위인 의존 명사이므로 '한 V 채'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6) ② [어문규정 - 외래어 표기법]

'원도'는 '중모음을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적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표기 세칙 제8항에 따라 '원도우'로 적지 않는다.

'컨셉트'는 "[ə]는 '어'로, [ʌ] 역시 대체로 '어'로, [ɔ]는 [o]와 구별 없이 '오'로 표기한다'는 외래어 표기법 표기 세칙 제9항에 따라 '컨셉'이나 '컨

샐트'로 적지 않는다.

제8항 중모음 ([ai], [au], [ei], [oi], [ou], [auə])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time[taim] 타임	house[haus] 하우스	skate[skeɪt] 스케이트
oil[oil] 오일	boat[bout] 보트	tower[tauə] 타워
scaling[skæliŋ] 스케일링	bowling[bouliŋ] 볼링	scaling[skæliŋ] 스케일링
bowling[bouliŋ] 볼링	yellow[jelou] 옐로	snow[snou] 스노
slogan[slougən] 슬로건	syndrome[sindroum] 신드롬	window[windou] 윈도우
rainbow[reɪnbəu] 레인보	clover[klɔuvə] 클로버	yogurt[jougə : rt] 요구르트
power[pauə] 파워		

[오답해설]

① → 액세서리, 주스

'복장의 조화를 도모하는 장식품'을 뜻하는 'accessory'는 '악세서리'가 아닌 '액세서리'로 적는다.

국어의 특성을 존중하여 'ㅈ'이나 'ㅊ' 다음에 'ㅣ' 계열의 이중 모음(ㅈ, ㅊ, ㅊ, ㅊ, ㅊ, ㅊ)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주스'가 아닌 '주스'로 적는다.

원자	잘못된 표기	올바른 표기	원자	잘못된 표기	올바른 표기
narration	나레이션	내레이션	accessory	악세서리	액세서리
nostalgia	노스탈지아	노스탤지어	emerald	에머랄드	에메랄드
dynamic	다이나믹	다이내믹	calendar	카렌다	캘린더
basket	바스킷	바스켓	climax	클라이막스	클라이맥스
paradox	파라독스	패러독스	panel	판넬	패널
ad-lib	에드리브	애드리브	graph	그라프	그래프
slab	슬라브	슬래브	format	포맷	포맷

③ → 애드리브

'연극이나 방송에서 출연자가 대본에 없는 대사를 즉흥적으로 하는 일. 또는 그런 대사.'를 뜻하는 'ad lib'은 '애드리브'로 적는다.

'로봇'은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표기 세칙 제1항에 따라 '로보트'로 적지 않는다.

제1항 무성 파열음 ([p], [t], [k])

1.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gap[gæp] 갭	cat[kæt] 캣	book[buk] 북
robot[rooba:t] 로봇	racket[rækɪt] 라켓	spirit[sprɪt] 스피릿
alphabet[ælfəbet] 알파벳	omelet[ɑ:mlet] 오믈렛	carpet[kɑ:rɪpt] 카펫
carat[kærət] 캐럿	pilot[paɪlət] 파일럿	helmet[helmt] 헬멧
pamphlet[pæmflət] 팸플릿		

④ → 심포지엄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토론회.'를 뜻하는 'symposium'은 '심포지움'이 아닌 '심포지엄'으로 적는다.

'플래시'는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샤', '샤', '샤', '샤', '슈', '시'로 적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표기 세칙 제3항에 따라 '플래쉬'로 적지 않는다. 또한,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제2항에 따라 '후레시'로 적지 않는다.

원자	잘못된 표기	올바른 표기	원자	잘못된 표기	올바른 표기
dribble	드리블	드리블	symbol	심볼	심벌
sponge	스폰지	스펀지	symposium	심포지움	심포지엄
moratorium	모라토리움	모라토리엄	confirm	콘펌	컨펌
button	보턴	버튼	cushion	쿠션	쿠션
towel	타울	타월	mystery	미스테리	미스터리

제3항 마찰음 ([s], [z], [f], [v], [θ], [ð], [ʃ], [ʒ])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

mask[ma : sk] 마스크	jazz[dʒæz] 재즈
graph[græf] 그래프	olive[ɒlɪv] 올리브
thrill[θrɪl] 스릴	bathe[bæθ] 베이드

2.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샤', '샤', '샤', '샤', '슈', '시'로 적는다.

flash[flæʃ] 플래시	shrub[ʃrʌb] 슈러브
shark[ʃɑ : k] 샤크	shank[ʃæŋk] 샹크
fashion[fæʃən] 패션	sheriff[ʃerɪf] 셰리프
shopping[ʃɒpɪŋ] 쇼핑	shoe[ʃu :] 슈
show[ʃou] 쇼	shepherd[ʃepərd] 셰퍼드
English[ɪŋglɪʃ] 잉글리시	shake[ʃeɪk] 셰이크
leadership[lɪ : dərʃɪp] 리더십	shim[ʃɪm] 심

7) ③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그리고 나서 이를 뒤었다.

'그리고 나서'의 '그리고'는 동사 '그리하다'의 준말인 '그리다'의 어간 '그리-'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한 것이고, '나서'는 동사 뒤에서 '-고 나서'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그리고'는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므로 뒤에 보조 동사인 '나서'가 올 수 없다.

[오답해설]

① '누레진'은 형용사 '누렇다'의 어간 '누렇-'에 피동의 보조 용언의 어간 '-어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것이다. '까맣다, 노랗다, 하얗다' 등은 'ㅎ'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으로, 용언의 어간 끝 받침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탈락한다.

② '만들새'는 동사 '만들다'의 어간 '만들-'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이 결합하여 '만들이' 되고, 이에 '모양, 상태, 정도'를 나타내는 접미사 '-새'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르느지는'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르'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뒤 절이 나타내는 일과 상관이 있는 어떤 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르느지', '-르느지는' '-르느지'의 틀린 표기이다.

8) ② [이론 문법 - 통사론 - 문장의 짜임새]

(누구나 자기 현실을 불변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자기 현실을 불변의 것으로 생각하는'은 의존 명사이자 문장의 주어인 '것'을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이 문장의 안긴 절은 하나이다.

[오답해설]

① 철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용기가 부족하다].

: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은 체언 '용기'를 수식하는 관형절이고, '용기가 부족하다'는 주어인 '철수'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므로, 이 문장의 안긴 절은 관형절과 서술절이다.

③ 누구도 [그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후보자임]을 의심치 않았다.

: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은 체언 '후보자'를 수식하는 관계 관형절이고, '그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후보자임'은 서술격 조사 '이다'에 명사형 전성 어미 '-ㅁ'이 결합한 명사절이므로, 이 문장의 안긴 절은 관형절과 명사절이다.

④ 그는 [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 '소리 없이'는 부사이면서 서술성이 있는 '없어'를 사용하여 동사 '내리는'을 수식하는 부사절이고 '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은 체언 '모습'을 수식하는 동격 관형절이므로, 이 문장의 안긴 절은 부사절과 관형절이다.

9) ④ [이론 문법 - 형태론 - 조사]

'배하고 사과하고 감을 가져오너라.'의 '하고'는 체언 뒤에 붙어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너는 성격이 누구하고 같느냐?'의 '하고'는 형용사 '같다'의 필수적 부사어 '...과'를 대신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의 '하고'가 모두 부사격 조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동창회에서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했다.'의 '에서'는 전달하는 행위의 주체로서 조직이나 단체를 나타낼 때 쓰는 주격 조사이므로, '동창회에서'가 주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어느 학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의 '에서'는 일이 일어났던 장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므로, '동창회에서'가 부사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되다'와 '아니다'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로, 제시된 문장에서 '물'이 '주격 조사와 결합한 주어, '얼음이'는 보격 조사와 결합한 보어이다. 한편, '되다' 앞에 오더라도 '으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오면 앞말은 보어가 아니라 필수 부사어가 된다.

③ '민주'는 업마와 진학 문제를 의논했다.'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없는 홑문장이며, '의논하다'는 함께 의논하는 주체가 필요한 서술어이므로 '와'가 부사격 조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업마와 민주'는 민학을 기다렸다.'는 '업마는 민하는 기다렸다.'와 '민주'는 민하는 기다렸다.'로 나눌 수 있는 문장이며, 이때 '와'는 두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 주는 접속 조사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참고 '와/과', '하고', '(이)랑'

· '와/과', '하고', '(이)랑' 등은 접속 조사로도 쓰이고 '동반'의 부사격 조사로도 쓰인다.

· '와/과' 따위가 동반의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는 대체로 '만나다, 마주치다, 싸우다, 대면하다, 다투다'와 같이 대칭 동사 혹은 상호 동사일 때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홑문장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겹문장이 아니다.

10) ① [이론 문법 - 통사론 - 서술어 자릿수]

주어 '일은'과 서술어 '서술했다'의 호응이 맞지 않아 서술어를 '~하는 것이다'로 고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술어 자릿수를 고려하여 빠진 문장 성분을 보충해야 한다는 <보기>의 내용과 무관하다.

[오답해설]

② '간주하다'는 '...을 ...으로 간주하다'처럼 쓰이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수정 전 문장은 '간주하다'의 목적어가 누락된 문장이다. 수정 후 문장에서 누락된 목적어 '그를'을 삽입하여 완전한 문장이 되었으므로 <보기>의 내용과 부합한다.

③ '복종하다'는 '...에게 복종하다'처럼 쓰이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복종하기도 하고'의 객체인 '자연'에 있으므로 옳은 문장이다. 한편, '지배하다'는 '...을 지배하다'처럼 쓰이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수정 전 문장은 목적어가 누락된 문장이다. 수정 후 문장에서 누락된 목적어 '자연'을 삽입하여 완전한 문장이 되었으므로 <보기>의 내용과 부합한다.

④ '넣다'는 '...에 ...을 넣다'처럼 쓰이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수정 전 문장은 손을 넣은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누락되어 있고, 수정 후 문장에 부사어 '호주머니에'를 보충하여 완전한 문장이 되었으므로 <보기>의 내용과 부합한다.

11) ③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하늘'과 '떠도는 구름'은 넣은 것이 없는 멀건 죽에 비치는 것이다. '나(김삿갓)'는 주인이 미안할까 봐 죽 그릇에 든 청산이 좋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인이 궁핍을 알 수 있을 뿐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유유자적한 삶은 '나(김삿갓)'의 태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오답해설]

① '네 다리 소반에 죽 한 그릇'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김삿갓)'에게 정성스럽게 대접한 소박한 음식이다. 이를 통해 나그네인 '나'에 대한 주인의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다.

② 3구와 4구에서 대접할 음식이 마땅치 않아 미안해하는 주인을 위로하고 감사를 전하는 '나(나그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④ '나는 물에 거꾸로 비친 청산이 좋だよ.'에서 '나(나그네)'의 안분지족적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자조나 탄탄은 보이지 않는다.

◆ 김병연, <무제(無題)>

- 갈래: 한시, 7언 절구, 서정시
- 성격: 해학적, 낙관적, 긍정적
- 주제: 속세를 초월한 인생관과 청빈한 삶에 대한 의지
- 구성:
 - 기: 서민들의 따스한 인정과 가난한 삶

- 승: 화자의 유유자적한 삶
- 전: 주인(가난한 농민)에 대한 위로
- 결: 안분지족하는 삶의 태도
- 특징:
 - 비유적이고 해학적인 표현
 -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듯한 어조
 - 긍정적(낙관적)이고 서민적인 정서

12) ③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매클루언은 '매체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 작용을 유발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활용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매개 도구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매체가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단순한 매개 수단이라는 관점은 매클루언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 참고: 지문 2021 EBS 수특 독서 사회문화 07

[오답해설]

① 매클루언은 '말과 글'과 같은 언어적 기호뿐만 아니라 '옷과 집, 과학과 철학, 회화와 음악'과 같은 비언어적 기호도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매클루언은 '매체에 의해 인간의 사고가 결정되고, 인식 체계가 바뀌며,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까지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면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매클루언의 관점과 부합한다.

④ 매클루언은 직접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적 기호와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 비언어적 기호 모두 매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차'가 의미 전달에 활용된다면 매체라고 할 수 있다.

13) ① [독해(문학) - 이론 - 지식 국어]

<서동요>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무왕조(武王條)에 실려 전해진다.

[오답해설]

② <서동요>는 아이들이 부른 동요이자 참요이다. 따라서 민요적 성격이 강하다.

③ 향찰에서 실절 형태소는 훈차,형식 형태소는 음차로 표기한다. 첫 번째 구의 밑줄 친 '隱'은 조사의 기능을 하므로 음독한다.

▼ 서동요 향찰 분석

善化公主主隱 선화공주님은

구분	善	化	公	主	主	隱
뜻	착할	될	귀인	님	님	숨을
음	선	화	공	주	주	은

他密只嫁良麗古 남 몰래 결혼하고

구분	他	密	只	嫁	良	麗	古
뜻	남	그윽할	다만	일	좋은	돌	옛
음	타	밀	지	가	랄	치	고

薰童房乙 맛동서방을

구분	薰	童	房	乙
뜻	만	아이	방	새
음	서	동	방	을

夜矣卯乙抱遺去如 밤에 몰래 안고 가다.

구분	夜	矣	卯	乙	抱	遺	去	如
뜻	밤	어조사	토끼	새	안을	보낼	갈	갈(다)
음	야	의	묘	을	포	진	거	여

④ <서동요>와 <선화>는 4구체 향가이다.

◆ 백제 제30대 무왕, <서동요>

- 해제: 백제의 서동이 신라 제26대 진평왕 때 지었다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4구체 향가이다. 아이들이 부른 동요이자 민요이며, 서동의 계략에 의해 만들어진 참요(譚謠)이다. (*참요: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 징후를 예언·암시하는 노래)
- 주제: ① 선화 공주의 은밀한 사랑, ② 선화 공주에 대한 연모의 정
- 갈래: 4구체 향가
- 구성: [1] 선화 공주의 사랑, [2] 서동과의 밀애

14) ①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백화가 고향에 빠져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영달은 백화를 업어 주기도 하고 옆에서 부추해 주기도 하며, 백화가 좋은 여자 같다는 정 씨의 말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통해 영달이 백화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백화와 영달의 동행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② “내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네기 신셀 청산해야지.”라고 하며 정씨는 영달에게 백화와 동행할 것을 권유한다. 이를 통해 정씨 본인은 삼포에 정착하여 뜨네기 신세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백화가 뭐가 썩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를 통해 백화는 영달이 본인과 동행할지 동행하지 않을지 영달의 마음을 가늠하기 힘들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라며 영달에게 동행할 것을 제안하는 백화의 말과, ‘영달이가 내린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를 통해 백화는 영달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해제: 이 작품은 우연히 만난 세 인물의 여정을 통해 1970년대의 산업화가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어디까지 훼손하는지를 애잔하게 그리고 있다. 영달, 정 씨, 백화는 모두 뜨네기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첫 만남에서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한다. 하지만 동행의 과정에서 점차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이 작품이 성취한 중요한 감동이다. 동시에 이 작품은 현실주의의 시선도 잃지 않는다. ‘삼포’라는 풍요의 공간과 따뜻한 관계에 정착하려는 인물들의 열망과 그 좌절을 담담하게 그리면서 산업화의 비극을 예리하게 드러낸다.

·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들의 삶의 애환과 연대 의식

· 전체 줄거리: 영달은 공사판에서 밥값을 때어먹고 도망치다가 정 씨를 만난다. 정 씨의 고향인 삼포로 길을 잡은 두 사람은 백화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지만, 우연히 만난 백화와 동행한다. 추위를 피해 들어간 폐가에서 백화는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후 이들은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정을 느낀다. 기차역에서 백화는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자고 영달에게 제안하고 영달은 고민 끝에 기차표와 먹을거리를 챙겨 건네고 백화를 떠나 보낸다. 정 씨는 한 노인으로부터 자신의 고향인 삼포가 공사판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정처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15) ②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형식 이해]

소설에서 말하기(telling) 방식은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고 보여주기(showing) 방식은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대화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된 부분은 인물의 대화나 행동이 중심이 되어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보여주기 방식을 통해 극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① 이 작품은 본래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제시된 부분은 인물의 심리보다는 행동 및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관찰자 시점의 성격을 지닌 부분이다.

③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백화의 복잡한 심정이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④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어쨌든.....” 등에서 말끝을 흐리는 방법으로 ‘감정의 여운’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④ [독해(비문학) - 빈칸 추론 + 어휘 - 한자성어]

지문에 따르면, 과거에는 남쪽의 글을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식의 변화와 통합이 주를 이뤘으며 이는 생활의 필요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이 자연스레 합치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빈칸에는 ‘희남의 글을 회복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으로, 환경에 따라 사람이 나 사물의 성질이 변함을 이르는 말:인 橘化爲枳(굴화위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橘 굴나무 굴, 化 될 화, 爲 할 위, 枳 탱자나무 지

[오답해설]

① 국수주의(國粹主義):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전통·정치·문화만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믿고,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태도나 경향.

國 나라 국, 粹 순수할 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② 위정척사(衛正斥邪): 구한말에, 주자학을 지키고 가톨릭을 물리치기 위하여 내세운 주장. 본디 정학(正學)과 정도(正道)를 지키고 사학(邪學)과

이단(異端)을 물리치자는 것으로, 외국과의 통상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다.

衛 지킬 위, 正 바를 정, 斥 물리칠 척, 邪 간사할 사

③ 상분지도(嘗糞之徒): 대변이라도 맛볼 듯이 부끄러움을 돌아보지 않고 몹시 아첨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嘗 맛볼 상, 糞 똥 분, -의 갈 지, 徒 무리 도

17) ② [어휘 - 한자어]

‘자의성(恻愍性)’의 ‘자(恻)’는 ‘마음대로 자/방자할 자’이다. ‘방자(放恣)-하다’의 ‘자(恻)’ 역시 같은 자형을 쓴다.

자의성(恻愍性):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은 특성.

恻 마음대로/방자할 자, 意 뜻 의/기억할 억, 性 성품 성

방자(放恣)-하다: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노는 태도가 있다.

放 놓을 방, 恣 마음대로/방자할 자

[오답해설]

① 지자체(地自體): ‘지방 자치 단체(특별시·광역시·도·시·군과 같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서 법이 인정하는 한도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를 줄여 이르는 말.

地 땅 지, 自 스스로 자, 體 몸 체

③ 자세(仔細/子細)-히: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히.

仔 자세할 자, 細 가늘 세 / 子 아들 자, 細 가늘 세

④ 자태(姿態): 어떤 모습이나 모양. 주로 여성의 고운 뺨이나 태도에 대하여 이르며 식물, 건축물, 강, 산 따위를 사람에 비유하여 이르기도 함.

姿 모양 자, 態 모습 태

18) ④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경 발문]

플라톤은 실재와 똑같이 그려진 회화, 즉 ‘시물라크르’를 실재하지 않는 것, 가상의 것으로 보았으며, ‘현실은 세계의 원형인 이데아의 복제물이고 회화는 그 현실을 다시 복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플라톤이 실재를 완벽하게 똑같이 그린 회화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실재가 파생 실재로 전환되는 작업을 ‘시물라시옹’이라고 하며 ‘시물라시옹’의 결과물은 ‘시물라크르’(파생 실재)이다.

② 원본의 복제물인 시물라크르는 ‘파생 실재’라고도 불리며 실재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사실적인 ‘하이퍼리얼리티’를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물라크르, 파생 실재, 하이퍼리얼리티는 같은 의미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③ 보드리야르는 ‘시물라크르가 독립된 정체성을 갖춘 개체, 즉 또 다른 실재이자 원본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실재와 똑같이 그려진 그림(시물라크르)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드리야르는 사진을 보고 이를 재현한 그림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19) ④ [독해(비문학) - 독법]

‘독법’이란 ‘글이나 책을 읽는 방법’을 뜻한다. (가)는 설명하는 글이고 (나)는 주장하는 글이다.

(나)는 주장하는 글이므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사실과 의견 등을 파악하고 그 내용에 대해 공감하거나 반박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비판적인 독해에는 글에 대한 공감이 포함되므로, 공감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사실적 독해’란 글의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읽는 것이며 글 읽기의 다양한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독해 방법이다. 글에 담긴 사실적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이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 독해는 다른 읽기 방법에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우선 사실적 독해를 기본으로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주지’란 글의 중심이 되는 정보이며 ‘부연’은 어떤 내용이나 주장에 대해 덧붙여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가)의 첫째 문단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물을 둔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는 중심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둘째 문단에서는 제주도에서 식

수를 모으고 관리하던 방법을 제시하여 첫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두 문단은 ‘주지-부연’의 관계로 읽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가)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므로 이해 위주의 읽기로 충분할 수 있다.

참고) 독해 방법

- 사실적 독해: 글의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읽는 것을 이르며, 글 읽기의 다양한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된다.
- 추론적 독해: 글의 전체 맥락과 배경지식 등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이나 글쓴이의 의도, 가치관이나 관점 등을 파악하며 읽는 것을 이른다.
- 비판적 독해: 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글 속에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등을 따져 보면서 읽는 것을 말한다.
- 감상적 독해: 정의적 능력을 발휘하여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감상하며 읽는 것을 말한다.
- 창의적 독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생각을 펼치며 읽는 것을 말한다. 글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내며 읽는 방법이다.

20) ② [독해(문학) - 문학사 - 지식 국어]

<구운몽>은 판소리계 소설이 아니다, 조선 후기 숙종 때 서포 김만중이 어머니 윤 씨를 위해 지은 국문 소설로 몽자류 소설의 효시가 되는 작품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아 정착된 소설로, 대표적으로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토끼전> 등이 있다.

[오답해설]

- ① 시조 부흥 운동은 1920년대 후반에 국민 문학파가 민족주의 문학 운동의 하나로 제시한 근대 시조 창작 운동으로, 최남선, 이광수, 이은상, 이병기, 정인보 등이 창작과 이론 면에서 이에 기여하였다.
- ③ 이상의 <날개>는 1936년 《조광》지에 발표한 단편소설로,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 소설이며 자의식의 세계를 탐색한 우리나라 최초의 심리주의 소설이다.
- ④ <호질>, <양반전>은 연암 박지원이 지은 한문 소설이다.